

아동기 외상 경험의 군집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와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의 차이

최은혜* · 황혜정**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 경험에 따라 성인기에 대인관계 문제와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아동기 외상 경험의 장기적 영향을 밝히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성인 남녀 중 학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241명의 자료를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외상 경험은 외상 미약, 신체·정서 중복 외상, 신체적 외상, 정서적 외상, 성적·신체 중복 외상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성인기의 대인관계 문제 전체는 신체·정서 중복 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외상이 미약한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친애 차원은 신체·정서 중복 외상이 외상이 미약한 집단과 신체적 외상 집단에 비해 높았고, 통제지배 차원은 신체·정서 중복 외상과 성적·신체 중복 외상 집단이 외상이 미약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인기의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은 아동기에 신체·정서 중복 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기의 중복 외상 경험은 성인기의 대인관계 문제와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에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아동기 외상 예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미 발생한 경험을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구축하여 아동기 외상 경험을 적극적으로 사후조치할 사회적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 아동기 외상 경험, 대인관계 문제,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 학대

논문 투고일 : 2024. 4. 26.

최종심사일: 2024. 5. 22.

게재확정일: 2024. 6. 21.

*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wang, Hyejung, 706, Professor's research center, Kyonggi University, 154-42, Gwanggyosan-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16227. E-Mail : jinhwang@kyonggi.ac.kr

I. 서론

2023년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인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은 소위 묻지마 범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를 행위로 표출한 사건들이다. 2017년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 대상의 범죄심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어린 시절 방임 경험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원활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러한 경험이 범죄의 원인과 밀접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즉, 묻지마 범죄의 원인은 정신병 때문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외상 경험이 성인 시기의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쳐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17).

보건복지부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의 신고 건수는 46,10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서 학대(10,632건, 38%)와 중폭 학대(9,775, 34.9%)였다. 나머지 신체학대는 4,911건(17.6%), 방임은 2,044건(7.3%), 성 학대는 609건(2.2%)으로 보고되었다. 중폭 학대는 신체, 정서, 성 학대와 유기나 방임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신체와 정서 학대의 중복이 8,439건(30.2%)으로 중폭 학대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아동학대는 아동기에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게 하는 외상 경험이다(김춘경·이윤주·정종진, 2016). 심리적 외상이란 충격적이고 경험적 사건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 손상의 유형으로 한 번의 경험이나 반복되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아동기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외상은 부모나 양육자와 같이 보호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 부작용으로 정의되고 있다(김춘경 외, 2016). 아동복지법 제3조7항에서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과 같은 가혹행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직접적인 가해행위의 적극적 행위 만이 아니라 단순 체벌 및 훈육과 같은 행위나 환경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그런데 여전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가장 높은 비율은 부모(83.3%)라는 점에서(보건복지부, 2023) 경각심을 가져야 필요가 있다. 부모는 생애 초기부터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이후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과정의 기초를

형성해주는 대상이다(노충래 역, 2003).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신의 원 가족에서 겪은 경험을 모방하며 양육방식을 형성하고 부모 역할을 수행한다(정지나·한준아·김지현·김태은·윤상인, 2022). 그러나 부모의 성격특성과 자녀의 특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양육방식을 변화시키면서 맥락적 특성을 대대로 이어갈 가능성도 있고,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아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정지나 외, 2022). 이러한 가능성에 따르면 성인 시기의 범죄 행위는 아동기의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아동기의 외상 경험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 책무일 수 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의 심각성 때문에 1987년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연구가 발표되고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마련되었다(이유경, 2006). 또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방적 차원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신고의 의무화가 되었고, 예방 교육은 필수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운영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자체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다 면밀하게 지금의 사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기의 외상 경험은 성인기 대인관계의 주요 문제로 여겨지기도 한다. 대인관계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타인과 화합하며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김희동·이성희, 2023). 인간의 대인관계발달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해가는 지속적인 과정을 거친다. 영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내적 생각과 감정을 중심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을 축적하기 때문이다(노충래 역, 2003).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인 내의 대인관계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을 통해 이후 발달을 이끌어가며 성인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므로 아동기의 정상적 대인관계 경험의 부족은 언어 발달을 지연시키거나 사회성 결핍 등으로 이어져 신체 및 정신건강을 저해한다(김희동·이성희, 2023).

그렇기때문에 아동기에 외상 경험은 이후 대인관계발달을 안정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기 외상 경험은 아동을 둘러싼 여러 환경 간의 다면적이고 상호작용적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형성과 자기 관리 능력을 위협하게 한다(노충래 역, 2003). 게다가 외상 후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 및 우울, 무기력은 대인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타인을 희생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Spertus et al, 2003). 국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의 복합적인 외상 경험은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아동기에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학대나 방임 등의 외상 경험이 정서적 결핍과 단절의 심리적 틀로 도식화되어 장기적으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김지나·이홍숙, 2023). 아동기 외상 경험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 수준도 유의하게 높아졌는데(이유경, 2006) 아동기 외상 경험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게 하거나 경험을 회피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성인기의 대인관계 문제에 만성적 부적응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정지은·정남운, 2023).

세부적으로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 경험은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는 성인 환자의 대인관계 문제에 신체적 외상 경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Huh·Kim·Yu & Chae, 2014).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학대는 정서의 결함이나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쳤고, 방임은 사회적 고립과 같은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Bernstein, 2002). 유사한 결과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심할수록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증가시켰고(박정은·홍혜영, 2022; 이민애, 2023; 조애소미, 2023), 정서적 방임은 고립적인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민애, 2023; 조애소미, 2023). 반면, 신체적 외상을 경험한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가 적대적이거나 공격적, 또는 위축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학대를 한 대상인 부모나 동생을 돌보는 역할전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개인차도 보고되었다(노충래 역, 2003).

대인관계 문제와 유사한 측면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은 성인기의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외상 경험에 따른 불안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 일상생활로 인해 불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아동이 자기 보호적 회피행동을 발생시킨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공포가 강화되고 불안의 심각도가 악화된다. 이는 신체적 증상으로도 이어지며 반복적이고 과도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동기의 외상 경험을 4가지 이상 중복경험한 경우 성인기에 뇌졸중 경험, 불법물질 사용, 알콜 중독, 자살시도 가능성이 대략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강진령 역, 2018). 신체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받은 학대는 성인기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 있어 신뢰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긴장과 공격성을 나타내며 심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였다(Briere & Runtz, 1990). 미국에서 대규모로 수행된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불안장애를 겪은 경우의 1/3 ~1/5 정도가 이후 시기에 추가적인 사회적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rstein et al, 2011).

아동 및 청소년기의 사회적 외상 경험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타인에 의해 평가를 염려하는 성향이나 개인의 경험 회피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보다

복합적으로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을 증가 및 유지하는 데 관여하기도 한다(김서희·원성두, 2023).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기의 외상 경험은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의 부족을 매개하여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정재우·장은진, 2021), 초기 부적응 도식과 회피대처방식을 매개하여 성인기의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김은정·김진숙, 2010). 또한 부정적 정서는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김윤지, 2021).

위와 같이 아동기의 외상 경험은 성인기의 대인관계 문제나 상호 작용 불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아동기 외상 경험의 일부 경험과 성인기의 병리적 현상을 잇는 단편적 관계에 주목해왔다. 개인이 겪는 아동기 외상은 단편적이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있다(김윤지, 2021; 노충래 역, 2003), 이에 응답자의 데이터에 근거한 군집분석을 통해 다차원적인 아동기 외상 경험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성인기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결국 아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미래의 성인으로 아동복지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은 국가의 미래인력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된다(윤매자·권정미·김동욱·박민지·정전란·이화명, 2023). 그렇다면 아동기의 외상 경험이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와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부모와 교육현장의 구체적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예방적 차원 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의 시급한 지점이 어디인가를 알기 위한 경험적 근거도 필요하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기 외상 경험에 따른 군집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아동기 외상 경험의 군집에 따른 성인기의 대인관계 문제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기 외상 경험의 군집에 따른 성인기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리서치 회사에 의뢰를 맡겨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전국단위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 표집을 수행하여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대상만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소요시간, 방법, 주의사항, 비밀보장의 원칙에 대한 안내문, 참여동의서,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제시하고 동의한 사람의 응답만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로 최초 306부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결측치가 있는 자료 65부를 제외하고, 최종 241부(79%)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성별(남성 46.5%, 여성 53.5%)과 연령(20대 24.9%, 30대 23.7%, 40대 25.3%, 50대 26.1%)이 비교적 고르게 표집되었다. 경험한 학대 유형은 정서 학대가 32.8%로 가장 높고, 중박 학대가 29.9%, 신체 학대 21.6%로 높은 편에 속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학대 경험 (N=241)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12	46.5
	여성	129	53.5
연령	20대	60	24.9
	30대	57	23.7
	40대	61	25.3
	50대	63	26.1
경험한 학대 유형	신체	52	21.6
	정서	79	32.8
	방임	13	5.4
	성적	16	6.6
	중박	72	29.9
	무응답	9	3.7
전체		241	100

2. 연구도구

1) 아동기 외상경험 척도

아동기의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이유경(2006)이 번안한 Bernstein과 Fink(1998)의 아동기 외상 설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수정 및 타당화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CTQ는 부모 및 기타 성인으로부터 18세 이전에 경험했던 외상 경험을 나타낸 문항들로 신체에 물리적 상해를 입히거나 돌봄을 받지 못한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돌봄을 받지 못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성적인 영역에 노출 시키거나 행위를 가한 성적 학대 하위요인 3가지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변별은 ‘전혀 없음(1점)’에서 ‘자주 있음(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902, 신체적 학대 및 방임 .840, 성적 학대 .91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아동기 외상 경험 신뢰도는 .914로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경험 도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아동기 외상 경험 연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 내용(예시)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
정서적 학대 및 방임	• 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가슴 아픈 말을 한 가족이 있었다. •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역채점).	1, 2, 3, 4, 5, 11*, 12*, 13*, 14*, 15*	10	.902
신체적 학대 및 방임	• 세계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6, 7, 8, 9, 10, 16, 17*, 18, 19, 20	10	.840
성적 학대	• 강제로 신체(손, 엉덩이, 가슴, 성기 등)를 접촉한 적이 있다.	21, 22, 23, 24, 25	5	.916
전체		*역 채점 문항	25	.914

2) 대인관계 문제

대인관계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Rosenberg, Bear, Ureno와 Villasenor(1988)가 개발한 원안을(64문항)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재구성하고, 이를 한국인을 대상

으로 표준화한 김영환(2002)의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 척도 단축형(KIIP-SC)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인행동을 친밀한 행동과 적대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친애 차원(사회억제, 냉담, 과관여, 자기희생 문제) 20문항과 지배적인 행동과 복종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통제지배 차원(자기 중심성, 통제지배, 과순응성, 비주장성) 20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5점 Likert척도로 높은 점수일수록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많이 겪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친애 차원의 신뢰도 .906, 통제지배 차원 신뢰도는 .917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인관계 문제의 신뢰도는 .953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 도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대인관계 문제 연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구분	하위척도	문항 내용(예시)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
친애 차원	냉담	•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2, 8, 9, 15, 18	5	.906
	사회적 억제	•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려워한다.	4, 12, 17, 31, 36	5	
	자기희생	•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20, 24, 25, 32, 40	5	
	과관여	• 친한 사람에게 너무 매달린다.	26, 28, 29, 35, 38	5	
통제 지배 차원	통제지배	• 내 주장만 내세울 때가 많다.	19, 21, 27, 30, 33	5	.917
	자기중심성	•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줄기가 어렵다.	6, 7, 10, 13, 22	5	
	비주장성	•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1, 3, 5, 11, 16	5	
	과순응성	•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14, 23, 34, 37, 39	5	
전체				40	.953

3)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

사회적 상호 작용불안의 측정을 위해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한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척도(Social Interactive Anxiety Scale: SIAS)를 김향숙(2001)이 변안 및 타당화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된 단일 요인으로 타인이 자신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에 대한 변별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의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 작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 정도가 심함을 의미하며, 대인 간 상호 작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 척도의 신뢰도는 .95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도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 연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 내용(예시)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	•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 나면 긴장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950
	전체	*역채점 문항	19	.950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ver. 22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절차는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주요 변인의 측정 결과가 정규정 가정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한 도구들의 신뢰도 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에 사용한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기 외상 경험, 대인관계 문제,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의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아동기 외상 경험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기 위해 비계층적 방법인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아동기 외상 경험의 군집 유형에 따라 대인관계 문제와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과 사후검증(Scheffé)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인 아동기 외상, 대인관계 문제,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 간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기술통계를 통해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면 아동기 외상의 전체 평균은 .96(SD=.51)이고, 하위변인 중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평균이 1.37(SD=.71)로 가장 높고, 성적 학대의 평균이 .25(SD=.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문제의 전체 평균은 1.73(SD=.65)이고, 친애 차원이 1.81(SD=.67)로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통제지배 차원이 1.64(SD=.67)로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의 평균은 1.40(SD=.66)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는 West, Finch & Curran(1995)이 제시한 기준 왜도 절대값 3미만, 첨도 절대값 8미만에 적합해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상관은 $r=.43(p<.01)$, 아동기 외상과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의 상관은 $r=.36(p<.01)$ 으로 두 관계 모두 정적으로 중간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 간 상관은 대체로 유의하였으나 아동기 외상의 성적 학대와 대인관계 문제의 친애 차원($r=.13$), 아동기 외상의 성적 학대와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r=.07$)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

	1-1	1-2	1-3	1	2-1	2-2	2	3
1-1. 정서적 학대 및 방임	1							
1-2. 신체적 학대 및 방임	.66**	1						
1-3. 성적 학대	.15*	.41**	1					
1. 아동기 외상	.87**	.89**	.47**	1				
2-1. 친애 차원	.36**	.33**	.13	.38**	1			
2-2. 통제지배 차원	.41**	.40**	.20**	.46**	.89**	1		
2. 대인관계문제	.40**	.37**	.17**	.43**	.97**	.97**	1	
3.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	.36**	.31**	.07	.36**	.80**	.78**	.81**	1
평균	1.37	.91	.25	.96	1.81	1.64	1.73	1.40
표준편차	.71	.61	.51	.51	.67	.67	.65	.66
왜도	.07	.74	.32	.37	-.08	-.06	-.09	.26
첨도	-.47	.05	4.55	-.32	-.49	-.33	-.41	-.36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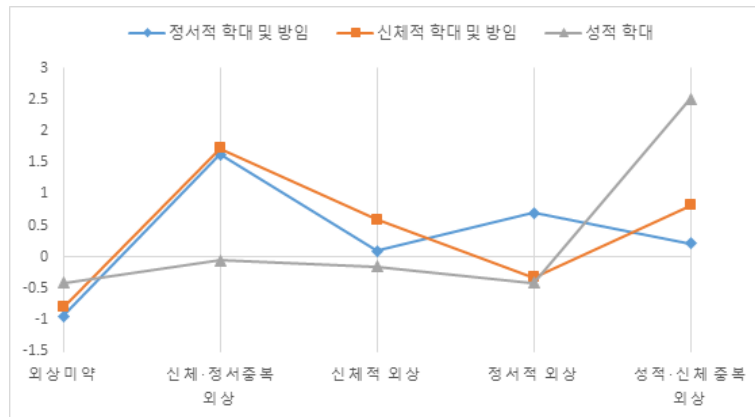
2. 아동기 외상의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의 경험에 따라 어떠한 군집으로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기 외상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성적 학대 3개의 변인을 표준점수로 변환하였다. 군집 수를 지정하기 위해 먼저 Ward의 계층적 방법으로 비슷한 경향의 사람을 묶어 도표로 보여주는 덴드로그램을 참고하였고 3~6개의 군집으로 묶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계층적 방법으로 군집 수를 3~6으로 각각 지정하여 군집 변인들의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중심점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군집을 구성하는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노경섭, 2019). 그 결과 5개의 군집으로 나눌 때 군집의 차별적인 특성이 개념적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평균화 점수 .5이상을 군집의 명칭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표 6, 그림 1 참조).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군집 1은 94명으로 학대 경험이 낮은 집단에 해당하여 외상 미약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26명으로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이 유사하게 높아 신체·정서 중복 외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43명으로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이 높게 나타나 신체적 외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51명으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높아 정서적 외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5는 27명으로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이 높게 나타나 성적·신체 중복 외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를 시각화한 그래프는 [그림 1]과 같다.

<표 6> 비계층적 군집분석 K-평균 군집분석 결과 (N=241)

	군집					F
	1 (n=94)	2 (n=26)	3 (n=43)	4 (n=51)	5 (n=27)	
정서적 학대 및 방임	-.94	1.63	.10	.70	.21	171.97***
신체적 학대 및 방임	-.80	1.72	.59	-.33	.82	162.74***
성적 학대	-.41	-.06	-.15	-.41	2.51	264.66***
집단명	외상 미약	신체·정서 중복 외상	신체적 외상	정서적 외상	성적·신체 중복 외상	



[그림 1] 아동기 외상 군집 유형화

3. 아동기 외상의 군집에 따른 차이 검증

1) 아동기 외상 경험 군집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의 차이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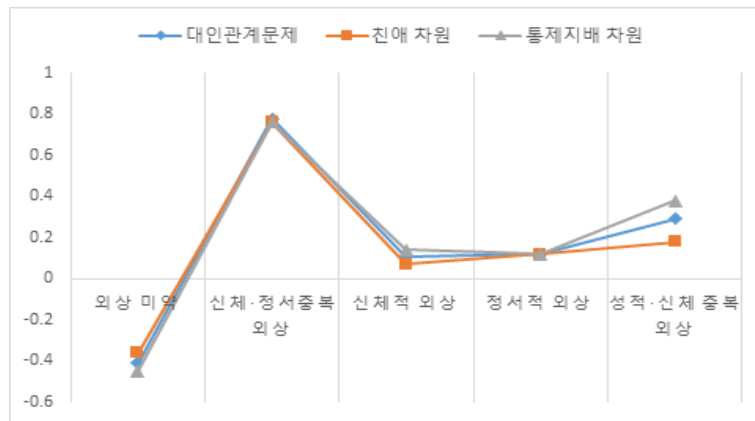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의 경험에 따라 분류한 집단들이 대인관계 문제에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과 Scheffé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인관계 문제의 전체에서 신체·정서 중복 외상을 경험한 집단($M=.78$, $SD=.99$)이 외상이 미약한 집단($M=-.41$, $SD=.93$)에 비해 대인관계 문제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들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먼저 친애 차원에서는 신체·정서 중복 외상($M=.76$, $SD=.96$)이 외상이 미약한 집단($M=-.36$, $SD=.93$)과 신체적 외상 집단($M=.07$, $SD=.86$)보다 높은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제지배 차원은 신체·정서 중복 외상($M=.76$, $SD=1.04$)과 성적·신체 중복 외상 집단($M=.38$, $SD=1.00$)이 외상이 미약한 집단($M=-.45$, $SD=.91$)보다 높은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아동기 외상 군집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 일원변량분석 결과 (N=241)

	외상 미약		신체·정서 중복 외상		신체적 외상		정서적 외상		성적·신체 중복 외상		F
	M	SD	M	SD	M	SD	M	SD	M	SD	
대인관계 문제	-.41 _c	.93	.78 _a	.99	.11 _{bc}	.87	.12 _{bc}	.89	.29 _{ab}	1.06	10.23***
친애 차원	-.36 _b	.93	.76 _a	.96	.07 _b	.86	.12 _{ab}	.95	.18 _{ab}	1.09	8.00***
통제지배 차원	-.45 _b	.91	.76 _a	1.04	.14 _{ab}	.89	.12 _{ab}	.86	.38 _a	1.00	11.65***

***p<.001

주. 같은 아래 첨자가 나타내는 평균은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p<.05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 의미.



[그림 2] 아동기 외상 군집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의 차이

2) 아동기 외상 경험 집단에 따른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의 차이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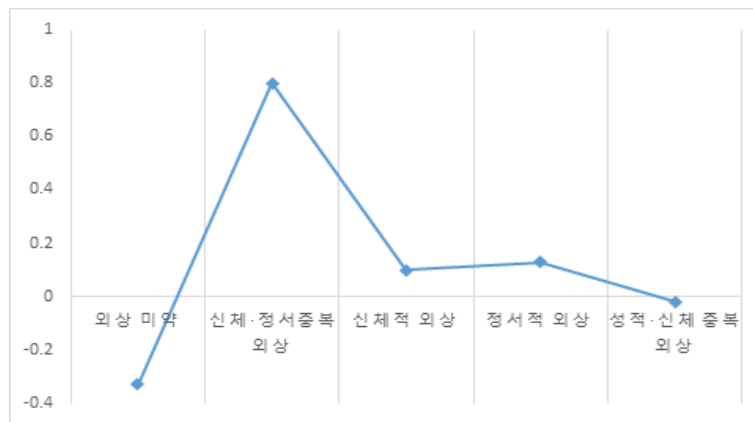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의 경험에 따라 분류한 집단들이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에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과 Scheffé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은 신체·정서 중복 외상을 경험한 집단(M=.80, SD=1.06)이 나머지 외상이 미약한 집단(M=-.33, SD=.91), 신체적 외상(M=.10, SD=1.04), 정서적 외상(M=.13, SD=1.00), 성적·신체 중복 외상(M=-.02, SD=.70) 집단에 비해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아동기 외상 군집에 따른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N=241)

	외상 미약		신체·정서 중복 외상		신체적 외상		정서적 외상		성적·신체 중복 외상		F
	M	SD	M	SD	M	SD	M	SD	M	SD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	-.33 _b	.91	.80 _a	1.06	.10 _b	1.04	.13 _b	1.00	-.02 _b	.70	7.84***

***p<.001

주. 같은 아래 첨자가 나타내는 평균은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p<.05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 의미.



[그림 3] 아동기 외상 군집에 따른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의 차이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 경험에 따른 군집 유형을 파악하고, 각 집단의 유형에 따라 성인기의 대인관계 문제와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기의 외상 경험이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전국의 19세 이상 아동학대를 경험했던 성인 241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기 외상 경험에 따른 군집분석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와 사회

적 상호 작용 불안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른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아동기 외상 경험은 다섯 가지 유형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표준화 시킨 점수를 통해 각 군집의 평균을 비교하여 두드러지는 특성을 중심으로 군집 명을 정하였다. 군집 1은 아동기 외상 경험이 모두 마이너스 점수로 나타나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미했을 것으로 보고 외상 미약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이 유사한 평균으로 높은 편에 속하여 신체·정서 중복 외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신체적 학대 및 방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 신체적 외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 정서적 외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5는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 성적·신체 중복 외상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아동기 외상 경험의 군집 유형에 따라 성인기의 대인관계 문제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복 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외상이 미약한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문제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도 유사한 결과를 가졌는데 세부적으로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친애 차원에서는 신체·정서 중복 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외상이 미약한 집단과 신체적 외상을 경험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통제지배 차원에서는 신체·정서 중복 외상과 성적·신체 중복 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외상이 미약한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문제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애 차원은 냉담, 사회적 억제, 자기희생, 과관여가 포함된 개념으로 대인의 행동에 대해 친밀하게 느끼거나 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 통제지배 차원은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비주장성, 과순응성이 해당되며 지배적인 행동과 복종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중복 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통해 아동기의 비정상적 경험은 사회성 결핍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김희동·이성희, 2023). 지나치게 친밀하거나 적대적인 것, 지배적이거나 복종적이라는 것은 대인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Spertus 외(2003)가 주장한 것처럼 아동기의 외상 경험이 반복적으로 타인을 희생시키는 문제와 관련된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기 외상 경험은 대인관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김지나·이홍숙, 2023),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대인관계 문제(박정은·홍혜영, 2022; 이민애, 2023; 조애소미, 2023)나 고립적인 대인관계 문제(조애소미, 2023;

Bernstein, 2002; Huh et al., 2014)에 모두 관여하며 만성적인 부적응의 원인(정지은·정남운, 2023)이 될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셋째, 아동기 외상 경험에 따른 군집에 따라 성인기의 상호 작용 불안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앞선 대인관계 문제와 같이 외상이 미약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정서 중복 외상을 경험한 집단이 다른 신체적, 정서적, 성적·신체 중복 외상 경험을 가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은 타인이 자신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로 신체·정서 중복 외상 경험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데 더 많이 관여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은 타인에 의한 평가와 매우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고 회피하는 경향으로 발현된다. 이는 아동기의 외상 경험은 성인기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김윤지, 2021; 김서희·원성두, 2023; 정재우·장은진, 2021). 위와 같이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은 경험 회피와 연관되고 상황에서 느끼는 순간적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다시 사회적 상호 작용을 방해하기도 한다(Wilson & Murrel, 2004).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인기의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회피행동을 발생시키고 우울의 선행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김은정·김진숙, 2010; 서다은·김은정, 2023).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 자체로도 병리적 현상이지만 다른 병리적 현상을 이끈다는 점(Briere & Runtz, 1990; Burstein et al., 2011; 강진령 역, 2018)에서 미리 예방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성은 정서를 세분화시켜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김윤지(2021)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상위 차원의 부정적인 정서는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은 하위 차원의 인지적 증상인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긍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 절하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본 연구의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여 아동기 외상 경험 중 중복 외상은 성인기의 대인관계 문제와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 모두에 높게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중복 학대가 가장 높은 점(보건복지부, 2023)을 보았을 때 가장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복 학대를 예방하는 것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중복 학대 중 신체와 정서적 학대의 중복이 가장 많았는데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신체 학대를 줄이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단일 학대도 줄고 중복 학대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적인 제재를 보다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유사한 법령을 가지고 있지만 스웨덴은 교육기관 내 신체적 처벌을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하였고, 가정 내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신체적 손상이나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심각한 경우 최고 10년의 구금형을 받도록 하는 강한 처벌이 아동학대 발생 수 감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률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다(김선숙·유민상, 2012; 박언하, 2021).

중요한 점은 학대를 포함한 외상 경험을 한 사람 모두가 성인기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했음에도 자녀를 학대하지 않는 경우 결혼 관계가 안정적이고, 긍정적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피학대 경험을 의식적으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기 외상 경험으로 회복하는 방법 중 성인기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키고 이를 유지하며 무엇보다 과거의 학대 경험을 인정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노충래 역, 2003). 즉, 아동기의 외상 경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돕는 것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적 개입 효과를 메타분석한 하나영과 이경은(2024)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 불안의 내현화, 공격성 등의 외현화,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중복 학대 아동에게 집단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학대 유형에 따라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 접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에 경험한 외상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의 건강 문제에 대해 낙인, 문제 인식 부족, 복잡한 의뢰과정, 제한된 진입 장벽 등과 같은 이유로 적적할 시기에 치료를 받는 비율이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대일 심리치료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지집단, 위기개입 서비스,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부모 코칭도 함께 이루어져 적절한 심리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증상이 심할수록 위와 같은 치료 동맹을 갖추고 공동체가 다체계 치료를 함께 할 필요가 있다(강진령 역, 2018). 현 제도에서는 부모 동의 없이 치료가 불가능하고, 가정에서 학대나 방임이 발생하더라도 분리조치된 후 다시 원가족 복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 아동에게는 공포가 실재하는 장면에 다시 복귀하게 된다.

실천적 방법으로 아동의 외상 경험을 인식하고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치료를 받는 아동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키고, 접근 장벽을 낮춰 정신건강 서비스 치료가 쉽게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먼저 장기 위탁 보호 기간을 늘리고 가정위탁의 경우 전문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해야한다(강현주·도미향·홍나미·백현주, 2021). 또한 원가족 복귀 전에 무지로 인해

학대나 방임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의 역량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과 적절한 치료도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예방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김금희(2020)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에게 아동권리존중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아동학대의 구체적 유형과 내용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실천 방법을 안내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는 부모역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과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유아 스스로에게 자신을 보호하거나 사건의 발생 시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유아 수준에 맞는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필수적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이경주, 도미향, 2011).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국가와 시도에서 전담인력과 체계를 갖추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사망사고가 증가하고(뉴스프리존, 2023), 담당하는 인력과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발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경인일보, 2024). 일정 지역의 아동 돌봄과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심과 관리 강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의 확충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도미향·윤지영·배영지·이종임, 2022). 아동학대 발견율 또한 2022년 기준으로 3.85%밖에 되지 않아 매우 저조한 편이다(보건복지부, 2023). 미국의 경우 예방적 접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들에 대해 차등적으로 대응 및 개입하는 방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아동, 서비스 지원 인력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하고 있다(박언하, 2021). 국가 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률 비교 연구를 수행한 김선숙과 유민상(2012)은 국가의 아동빈곤에 대한 대처와 사회서비스나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보고하였다. 결국 아동기 외상을 경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 경험 후 극복할 수 있게 치료하는 일은 국가의 예산과 개입, 법적 조치가 보다 강하고 확대되어야 실현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일부 대상을 통해 도출한 결과이므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신이 받은 아동기의 외상 경험을 응답함에 있어 자기 보고식 응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신뢰하는데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셋째, 군집을 분류할 때 높은 점수 위주로 명칭을 정하였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외상 경험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제시하고 해석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노력으로 아동기 외상에 대한 치료와 개입을 경험했는지와 그것이 성인기의 대인관계 문제와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을 극복하는데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본 관계성 외에 개인 내에서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도구를 사용하여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적 방안을 제안할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주·도미향·홍나미·백현주(2021).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코칭연구**, 14(5), 183-203.
- 김근희(2020).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아동권리존중 인식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효과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7(4), 5-27.
- 김서희·원성두(2023). 대학생들의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경험회피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9(1), 215-233.
- 김선숙·유민상(2012). OECD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아동학대 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아동학대로 인한 사망률 비료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4), 591-617.
- 김영환(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김윤지(2021). 초기 성인기의 사회불안과 우울의 공통 요인과 변별 요인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김진숙(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 부적응도식 정서표현 양가성 및 회피 대처 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22(3), 605-630.
- 김지나·이홍숙(2023). 아동기 복합외상이 초기 성인기의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자기체제손상의 순차적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4(2), 29-55.
- 김춘경·이윤주·정종진(2016). **상담학 사전**. 서울: 학지사.
- 김향숙(2001). 사회공포증 하위유형의 기억편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동·이성희(2023). **대인관계능력**. 서울: 동문사.
- 노경섭(2019). **제대로 알고 쓰는 통계분석: SPSS & AMOS**. 서울: 한빛아카데미.
- 도미향·윤지영·배영지·이종임(2022). 평택시 아동 돌봄 및 보호·안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7(4), 153-168.
- 박언하(2021). 한국의 아동학대예방 정책의 개선방안: 외국의 아동학대예방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청주복지포럼**, 8(0), 36-46.
- 박정은·홍혜영(2022).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20(4), 27-38.
- 서다은·김은정(2023).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우울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4), 381-400.
- 윤매자·권정미·김동욱·박민지·정정란·이화명(2023). **아동복지론**. 경기: 공동체.
- 이경주·도미향(2011). 유아 성폭력 예방 코칭프로그램이 성지식과 성폭력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8(1), 45-67.
- 이민애(2023).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상당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경(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우·장은진(2021). 아동기 대인간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공통감 내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발달지원연구**, 10(2), 145-161.
- 정지나·한준아·김지현·김태은·윤상인(2022). **부모교육 제2판**. 경기: 양서원.
- 정지은·정남운(2023).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 회피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8(2), 125-148.
- 조애소미(2023).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차별적 역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나영·이정은(2024).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정서적 개입을 위한 국내 집단프로그램 효과 연구의 메타분석. **한국아동복지학**, 73(1), 57-90.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21-536.
- Anthony J. U., & Cynthia W.(2003). **학대와 방임 피해 아동의 치료**. 노충래 역(2003). 서울: 학지사.
- Bernstein, D. P.(2002).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in patients with histories of emotional abuse or neglect. *Psychiatric Annals*, 32(10), 618-628.
- Bernstein, D. P., & Fink, L.(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 Briere, J., & Runtz, M.(1990). Differential adult symptomatology associated with three types of child abuse histories. *Child Abuse Negl*, 14(3), 357-364.
- Burstein M., He, J.-P., Kattan, G., Albano, A. M., Avenevoli, S., & Merikangas, K. R.(2011). Social phobia and subtype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adolescent supplement: prevalence, correlates, and comorbid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50(9), 870-880.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ear, B. A., Ureno G., & Villaseñor, V. S.(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 Huh, H. J., Kim, S. Y., Yu, J. J., & Chae, J. H.(2014). Childhood trauma and adult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in patient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Annals of General Psychiatry*, 13(26). <https://doi.org/10.1186/s12991-014-0026-y>
- Mattick, R. P., & Clarke, J. C.(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 of social phobia and scrutin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 Robert J. H., & Abraham M. N.(2018). **DSM-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가이드북**. **DSM-5**, 강진령 역(2016), 서울: (주)학지사.
- Spertus, I. L., Yehuda, R, Wong, C. M., Halligan, S., & Seremetis, S. V.(2003).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symptoms in women presenting

- to a primary care practice, *Child Abuse & Neglect*, 27,(11), 1247-1258.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56-75). London: Sage Publications.
- Wilson, K. G., & Murrell, A. R.(2004). Values work i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Setting a course for behavioral treatment. In Hayes, S. C., Follette, V. M., & Linehan, M.(Eds.), *Mindfulness & acceptance: expanding the cognitive-behavioral tradition*. NY: Guilford Press.
- 경인일보(2024). 과부하 걸린 아동학대 대처...저출산 사회의 역설인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205580447>
- 뉴스프리존(2023). [2023국감] 아동학대 사망사고 매년 증가.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019>
- 보건복지부(2023).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200&bid=0019&act=view&list_no=378052
- 아동권리보장원(2024).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https://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enu=1030&cntntsId=1283>
- 중앙일보(2017). 묻지마 범죄, 정신질환 탓 아니었네..‘진짜 방아쇠’는 외톨이 만드는 사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615113#home>

Abstract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According to Clusters of Childhood Trauma Experiences

Choi, Eun-Hye* · Hwang, Hye-jung**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in adulthood according to childhood trauma experience. The survey was conducted on respondents who had experienced abuse among adult men and women, and the results of 241 data points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First, the childhood trauma experiences were classified into five clusters: low-impact, physical·emotional co-occurrence trauma, physical trauma, emotional trauma, and sexual·physical co-occurrence trauma. Second, the entire scale and sub-scales of interpersonal problem for the 'physical·emotional co-occurrence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e other groups. Third, social interaction anxiety of the 'physical·emotional co-occurrence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e other groups. Through these results, the experience of 'co-occurrence trauma' of childhood has a strong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in adulthood. Also, the experience of trauma in childhood are closely related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in adulthood. Therefore, the nation must prevent childhood trauma, actively follow-up on measures for childhood trauma, and establish a specific solution to heal abuse experienc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Keywords : childhood trauma,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social interaction anxiety, abuse

*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onggi University